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연중 제17주일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의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고 커야지 좋다고 여기는 세상적인 생각을 거슬러, 적고 작은 것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비로운 하느님의 사랑을 오늘 미사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면서 한 인간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해줍니다.

그것도 당신 마음대로 결정을 다 하시고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상태에서 당신 계획을 통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자비하신 하느님 마음은 어떻게 해서라도 곧 아브라함을 통해 중재할 시간과 용서의 가능성을 주어서라도 벌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거두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느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끌어버리시렵니까?”라고 간절한 청을 몇 번이고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처럼 하느님의 자비와 선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청함은 결국 단 열 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는 답을 얻어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에서 소수 의인의 간절한 청은 다수 죄인의 심판까지도 막을 수 있는 힘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소수의 의인으로 다수의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며 너희 눈으로 찾아보아라. 바르게 살며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만, 우리는 신약에 와서 한 사람의 참된 의인을 통해 멸망이 아닌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을 위해 당신 자신을 제물로 내어 놓으시면서 청한 당신의 기도는 인간의 구원을 가져다줍니다.

사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간구한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의 간구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지방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느님께 지칠 줄 모르는 간청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나 자신, 내 가족, 내 지역, 내 나라로 한정하지 않고 죄의 열병을 앓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전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의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진선진 마태오 신부 | 상남동본당 주임

주일 진레

제 1 독 서	창세 18,20-32
화 답 송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제 2 독 서	콜로 2,12-14
복 음	루카 11,1-13



“늙어서도 열매 맺으리라”(시편 92[91],15)

사랑하는 여러분,

“늙어서도 열매 맺으리라.”(시편 92[91],15) 시편 저자의 이 말은 기쁜 소식, 곧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모든 이에게 선포할 수 있는 참된 ‘복음’입니다. 이 말은, 삶의 이 단계에 대하여 세상이 가지는 생각은 물론, 우리 노인들 가운데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도 품고 있지 않은 일부가 보여 주는 암울한 체념의 태도와는 상반되는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피하면 좋을 일종의 질병이라고 치부합니다. 사람들은, 노인들이 결코 자신들의 관심 대상도 아니고, 자신들이 노인들의 문제를 뒤치다꺼리하지 않도록 노인들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요양원이나 시설에 따로 떨어뜨려 두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버리는 문화’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취약함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게 하고, 우리가 ‘그들’과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와 무관하다 여기며 그들을 우리와 어느 모로든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오래도록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꺼려야 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충만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살아 있는 징표입니다. 행복하여라, 노인과 함께 사는 집! 행복하여라, 노인을 공경하는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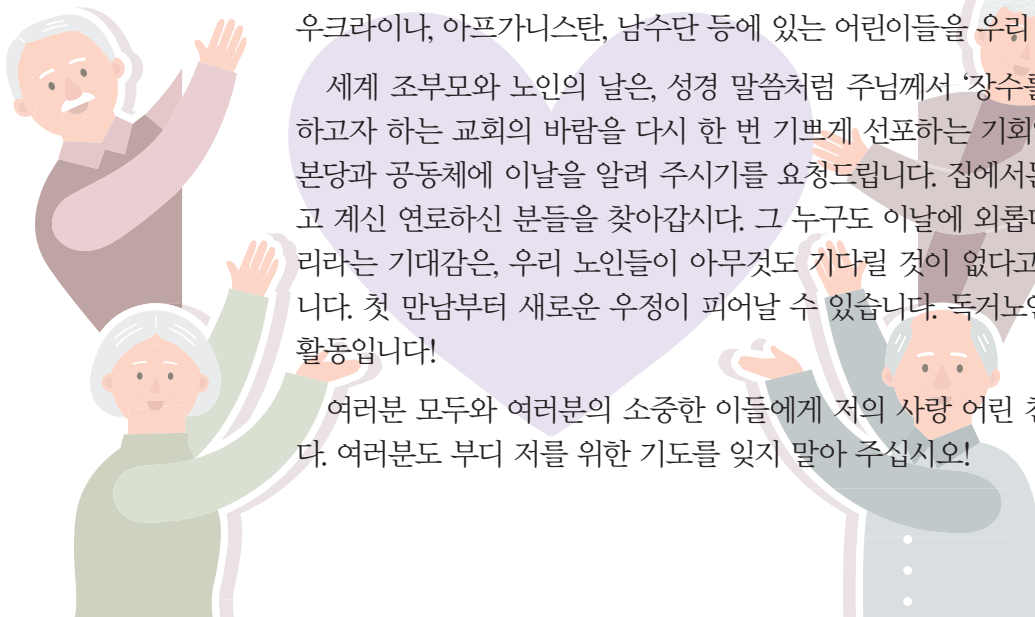
노년은, 이미 노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조차도 쉽게 깨닫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세월이 흘러 결국 노년을 맞이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가 노년을 대비하도록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노년이 우리에게 별안간 찾아오는 듯합니다. 선진 사회에서는 삶의 이 단계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으면서도 사람들이 노년을 이해하고 인정하도록 진정으로 돕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는 노인들을 위한 의료 복지 계획은 제 안할지언정, 이 시기를 충만하게 사는 계획은 마련하지 않습니다. 이는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 할 방향을 식별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한편, 주름을 가리고 언제나 젊은 척하면서 나이 드는 것을 뿌리치려는 유희를 받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가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침울한 생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우리의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여깁니다.

노년은 항해를 포기하고 돛을 접어야 하는 때가 아니라 여전히 열매 맺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사명이 우리를 기다리며 미래를 바라보라고 부릅니다. “인간미가 흐르게 하는 관심과 생각과 사랑에 관한 우리 노인들의 특별한 감수성이 다시 한 번 많은 이들의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노인들의 젊은 세대들을 향한 사랑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온유함의 혁명”, 곧 영적이고 비폭력적인 혁명을 위한 우리 노인들 나름의 헌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부모와 노인 여러분, 이러한 혁명 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맺으라고 부름받은 열매는 세상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부모님 품에 안기고 그 무릎에 앉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지원이나 기도만으로라도, 우리 손주들뿐 아니라 만난 적 없지만 전쟁 때문에 피난길에 오르거나 전쟁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는 겹에 질린 손주 같은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우리 무릎을 내어줄 때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관심이 많은 아버지였던 요셉 성인처럼 우리도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등에 있는 어린이들을 우리 마음으로 지켜줍시다.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성경 말씀처럼 주님께서 ‘장수를 누리게’ 해 주신 모든 이와 더불어 경축하고자 하는 교회의 바람을 다시 한 번 기쁘게 선포하는 기회입니다. 이날을 함께 경축합시다! 여러분의 본당과 공동체에 이날을 알려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집에서든 요양원에서든 사무치는 외로움 안에 살고 계신 연로하신 분들을 찾아갑시다. 그 누구도 이날에 외롭다고 느끼지 않도록 합시다. 누군가 찾아오리라는 기대감은, 우리 노인들이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다고 여기며 보내는 하루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만남부터 새로운 우정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방문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자비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 저의 사랑 어린 친밀함의 약속과 함께 교황 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저를 위한 기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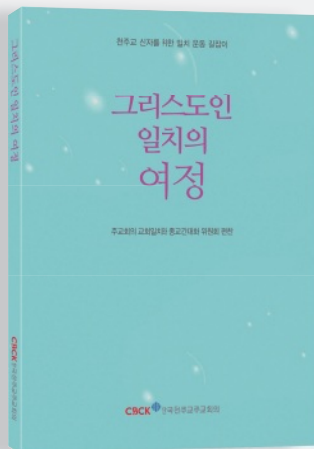
이웃 종교와 대화가 왜 필요한가

박재찬 안셀모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종교 간 대화에 대해 언급할 때 혹자는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 좋은 것이 다 있고, 구원이 있는데 왜 굳이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한다. 우선 현실적인 이유를 든다면 다양한 종교가 한 지역 안에 공존하면서 서로 충돌하거나 경제적, 정치적 이권 다툼이 종교적인 문제로 표면화되어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9·11사태 이후로 북미에서는 종교 간의 대화가 큰 화두로 떠올랐다. 세계 평화를 위해 종교 간 대화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종교 간 대화는 그리스도교의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인간 사회를 위한 평화의 요인”이며 “상처 입은 세상에 대한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종교 간 대화는 비단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종교를 넘어 활동하시는 하느님 성령의 인도에 따르며 보편적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하느님은 가톨릭 신자이실까? 무슬림이실까? 그럼 불자이실까? 그 어느 특정 종교만을 위한 하느님이 아니시다. 하느님은 종교를 초월해 계신다. 종교를 넘어 모두가 당신 사랑으로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보편적인 구원 의지를 지니신 자비와 사랑의 하느님이시다. 따라서 종교 간 대화는 우리 시대에 종교인들이 자신을 넘어 더 큰 사랑을 나누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이번 호부터 종교 간 대화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과 필요성,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 그리고 필자가 전공한 토마스 머튼의 종교 간 대화에 대한 이해와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오늘날 다양한 매체와 종교와 지역, 문화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유럽이나 아메리카에도 불자와 무슬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아시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한국에도 다양한 종교가 서로 공존하고 있다. 또 다른 양상으로 직접적인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종교를 넘어 다양한 영성에 관심을 갖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다원화된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복음의 정신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종교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그들과 어떤 방법으로 만나야 하는가?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스도교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과거에는 선교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오늘날에는 왜 그들이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대상인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선불교의 좌선이나 힌두교의 요가를 해도 되는 것인가? 불상 앞에 절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종교 간 대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종교 간의 대화는 결국 “나와 다른 타인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나와 다른 너와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다양성 안에서 어떻게 서로 일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 각자의 영적 성숙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종교를 넘어 깨달음에 이른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바로 자비와 사랑이다. 다른 이들을 배척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존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된다. 예수께서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9-37)에서처럼 경계 없는 사랑을 실천하셨다. 치유된 나병환자 10명 가운데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루카 17,11-19 참조). 서로 배척하며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히려 생명의 물을 주셨다(요한 4,1-42).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종교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문제의 결론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과 다른 종교인을 대할 때 아무런 오류에도 빠지지 않게 된다. 모든 식별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한다.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 숙고하고 이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 곁에 머물며 자신의 뜻과 거짓 자아를 벗어 버리는 수행이 필요하다. 편협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근본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하느님 중심의 더 큰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 종교를 대하기 위해서는 오랜 명상과 자기 비움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천주교에서 쓰고 개신교에서 감수한 그리스도교 일치 운동 길잡이

그리스도인 일치의 여정

천주교 신자를 위한 일치 운동 길잡이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위원장 김희중 대주교)는 그리스도인 일치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심화하고자 천주교 신자를 위한 일치 운동 길잡이 『그리스도인 일치의 여정』을 펴냈습니다. 천주교 신자와 갈라진 형제들 사이에 그리스도인 일치 운동과 관련하여 신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모든 신자가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꾸몄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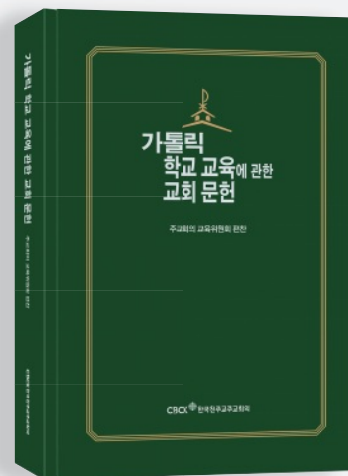
이 길잡이는 천주교 신자들이 갈라진 형제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질감을 회복하고,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공동의 신앙 유산을 재발견하고 간직하며, 공동선을 위하여 협력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출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저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

가톨릭 학교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이 책은 주교회의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창우 주교)가, 그리스도인의 교육과 관련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을 시작으로, 그 이후 발표된 교황님과 교황청 등의 가톨릭 학교 교육 관련 각종 문헌들을 연대순으로 모아 편찬한 문헌집입니다.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부터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까지 1965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된 총 21개의 문헌과 용어 색인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이 문헌집을 통하여 가톨릭 학교 교육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과 그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편찬: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강우일 주교의

숲길 단상

강우일 주교가 마음으로 소통하는 사랑·진리·생명·평화의 길

강우일 주교의 단상, 칼럼, 세미나에서 발표한 글, 기행문 그리고 인터뷰 내용 등을 담은 책이다. 강우일 주교의 따뜻하고 연민 가득한 마음과 그리스도인이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가치와 태도를 향한 열정 그리고 세상의 평화와 생태적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현실을 깊이 바라보는 시선이 날카로우면서도 한없이 따뜻하다.

- 출판: 바오로딸
- 저자: 강우일 주교

은총의 땅 파티마에서

백남오 시몬베드로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기적의 땅 파티마에서 성모님을 만나고 간절한 기도 한 번 올리고 싶었는데 67세 신년 벽두에서야 아들과 함께 그 소망을 이루게 되었으니 감회는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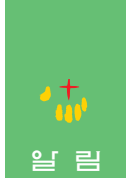
그 신비함만큼 파티마 가는 길은 멀고도 힘겨운 여정이었다. 사위어가는 일몰을 가슴에 묻으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출발한 버스는 달리고 또 달려 드디어 포르투갈 땅 파티마로 입성을 한다. 결국 오늘은 늦은 밤이라도 파티마에 들어가 성모님 품속에서 잠든다는 사실이 꿈만 같다. 아우레아 호텔에 도착하니 저녁 여덟 시쯤이다. 짐을 내리는 즉시 당신의 현현 장소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다.

적어도 30만 명은 들어설 수 있는 거대한 코바디 이리아 광장이 반긴다. 이렇게 큰 광장은 지금껏 본 적이 없다. 성모님은 이곳에 영원의 터전을 잡으신 것 같다. 백 년 전에는 양들과 목동들이 노니는 산속의 초원이었다. 광장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현대식 성삼위일체 성당이 고즈넉이 자리하고, 그 앞으로는 대형 십자가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동상이 있다. 동쪽 끝에는 파티마 대성당인 로사리오 성당이 위풍당당 왕관을 쓴 침탑의 십자가에서 찬란한 광채를 내뿜으며 그 순백의 형체를 보여준다. 이 성당 안에는 세 명의 목동이 영면에 들어 있다. 광장의 중앙으로는 순례자들이 무릎을 꿇어 엎드려 이동하며 온몸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처연해 보인다. 그 처절한 신심에 내 몸도 저려짐은 어쩔 수가 없다. 광장의 중앙을 천천히 걸어 대성당 가까이에 다가가니 발현예배당이 소박하게 촛불을 밝히고 있다. 성모마리아가 직접 나타나신 곳을 기념하여 세운 열려있는 성당이다. 이곳에서는 매일 저녁 신부님이 직접 나와 촛불 행렬의 미사를 집전한다고 한다. 나는 아들과 이 미사에 참례하는 가당찮은 영광을 얻는다.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작은 불씨가 무심결에 일렁이며 뜨거운 감동의 기도로 흐른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렇게 만남의 은총을 주셔서 기쁘고, 살아온 날들에 대하여 감사하다. 무수한 화살로 참기 어려운 아픔을 겪을지라도 노여움을 다스리고, 자연의 섭리를 순명하며 나를 내려놓게 하소서.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이 올지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조용히 삭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세상 탓으로, 남 탓으로 원망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잘못된 선택의 실수는 이제 너그러운 용서하시어 인생을 그르치게는 하지 말아 주소서. 그래도 세상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로 남은 생을 살게 하소서.

늦은 밤, 은총의 성지를 떠나며 지나간 하루의 여정을 접는다.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는 선달 열흘의 상현달은 광장에서 숙소까지 한 걸음도 늦추지 않고 비춰주고 동행해 준다. 오늘 밤은 세상의 모든 시름 놓아버리고 성모님 품속에서 아기처럼 잠들고 싶다.





기억할 선종 사제
조규성(베드로) 신부
2021년 7월 31일

故 조규성 베드로 신부 1주기 추모미사

일사: 8월 1일(월) 11:00
장소: 고성성당
주례: 총대리 최봉원(야고보) 신부
강론: 최재상(마티아) 신부
참석 범위: 교구청 사제단, 유가족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참석 범위를 제한합니다.
8월 초 폭염으로 고성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신부님을 기억하며 기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에서는 신부님을 위해 추모미사 1대를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본당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사: 7월 31일(주일) 10:30
장소: 석전동성당

청년 53차 선택주말 안내

일사: 8월 12일(금) 19:00~14일(주일) 17: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2~30대 미혼 남녀 누구나(47차<2017.4> 이전 참가자 재신청 가능)
신청: 7월 25일(월)까지 온라인 신청
(<https://naver.me/xA3K12RB>)
문의: 대표봉사자 010·4288·2698

청년성서 49차 탈출기연수 안내

일사: 8월 18일(목) 19:00~21일(주일) 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탈출기 성경그룹공부를 수행한 청년
(선착순 15명 마감)
접수: 8월 4일(목)까지, 청소년국 홈페이지
(청년부 연수 신청)로 신청
문의: 대표봉사자 010·2961·9918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전례꽃꽂이회 월모임

일사: 7월 28일(목) 13:30/ 장소: 교구청

232차 여성 꾸르실로

일사: 7월 28일(목)~31일(주일) 3박 4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기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집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피정 또는 단체 피정(5명 이내)
교육: 교리 교육
장소: 본원 피정의 집(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사: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
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문의: 010·3551·2038

대산본당 제18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조영수(방지개)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강수현(비오)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노영숙(바울라)
총무: 박귀순(글라리)
전례분과위원장: 박승선(아녜스)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조외순(마리아나)
복음화분과위원장: 이금자(누갈다)
청소년분과위원장: 이순재(파트리시오)
시설관리분과위원장: 우인범(세영알렉시오)
성지관리분과위원장: 정점돌(세레나)
차량관리분과위원장: 황태만(도밍고)

교구 성령기도회 일정 안내

일사: 8월 1일(월) 19:00~22:00/ 매주 월요일
장소: 중앙동성당
강의 및 미사: 이진호 안토니오 신부
(전국 성령쇄신봉사회 대표 사제)
주제: 성숙한 신앙인
▶찬미, 강의, 치유, 미사, 안수 있습니다.
※창원지구, 진해지역 성령쇄신봉사회를 교구
성령쇄신봉사회로 통합되어, 매주 기도회는
진해 중앙동성당에서 진행됩니다.

마산가톨릭교육관 직원 채용 공고

채용분야: 주방 1명, 시설관리 1명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신자),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본당 사제 추천서
접수: 방문, 우편 및
전자우편(cecomasan@gmail.com)
문의: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면접 후후 개별 통보



양곡본당 제24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박진태(스테파노)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박희규(요한)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이종분(카타리나)
총무분과위원장: 박상용(그레고리오)
전례분과위원장: 신일광(프란치스코)
선교분과위원장: 오기호(실베스텔)
청소년분과위원장: 박근택(다니엘)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선우선옥(소화데레사)
시설분과위원장: 최택호(요셉)
홍보분과위원장: 김현자(헬레나)
재경분과위원장: 김경수(안젤로)
구역분과위원장: 서명숙(에스텔)

수도회 성소자 모임	문 의	비 고
한국외방선교회	010·8715·2846/ kmsvocation@daum.net	해외 선교 사제를 꿈꾸는 청년

마 산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Anna Organ 창원시 진해구 신항동로 225 신항만 부영 3단지 307동 104호 전경선 안나 010 6409 4809 “조보 반주자 환영”	파크 골프 채 최고의 골프기능 특별할인 기회 NAVER에서 아리랑파크 골프채로 검색 선택 후 010-3599-0745로 연락주세요. 파크 골프 스포츠 대표 김요셉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여름휴가 특선 설악 지리산권 2박 3일 성지순례 7월 30일/ 8월 1일/ 8월 13일 각 지역 출발 차량, 숙식 일체 258,000원 제이케이 트립 010.5150.2625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	--	---	---

2023년 신학교 지원자 피정



2023학년도 신학교 지원자 피정이 7월 2일부터 3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피정에는 김진현(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부제와 장신영(요한 마리아 비안네) 부제가 동반해 주었다. 부제들은 지원자들과 함께 ‘하느님을 따르는 삶’과 ‘나의 성소’에 대해 생각하고 나누며, 지원자들의 성소를 응원하고 격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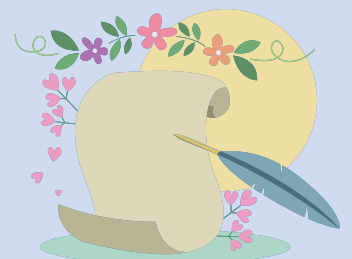
산호동본당 천주의 성모 Pr. 2,000차 기념 주회

산호동본당(주임: 김용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천주의 성모 Pr.(단장: 김태희 엘리사벳)은 지난 4월 8일 코로나19로 미뤄왔던 2,000차 기념 주회를 6월 28일에 진행하게 되었다. 천주의 성모 Pr. 단원들은 40년 동안 매주 금요일 함께 모여 주회를 하고, 이웃에 봉사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이날 기념 주회에는 꾸리아 간부와 브레시디움 단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였다. 본당 주임 신부는 “2,000차 주회를 성모님의 군대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 개인 성화에 매진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40년 동안 주회를 해온 단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하였다.



제16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금)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그리스도의 성혈 흠숭 수녀회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시편 90,14)
활짝 열린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새들의 활기찬 합창을 들으며 수도원의 아침을 맞는다. 더운 여름이어도 아침나절은 열기를 식히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빠르게 지난다. 가까이에서 노래하는 새들, 멀리서 노래하는 새들, 홀로 아니면 같이 서로 주고받는 새 소리에 마음을 정화시키며, 우리도 새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아침기도를 노래한다. 우리가 함께 봉헌하는 아침 찬미가 새들의 합창처럼 이 세상을 향한 축복과 정화로 봉헌되길 바란다.

수녀원이 산속에 있어 다양한 동물들과 새들의 교류안에서 친밀감을 키운다. 고라니, 멧돼지, 두더지, 다람쥐, 족제비, 지네, 쥐, 꿩, 까치, 까마귀. 그리고 길냥이들...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친구들이라 처음엔 만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와의 교류가 있는 일상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배움의 장이다. 2년 전 여름, 수녀원 현관문 밖 인터폰 나무박스에 나뭇가지가 곱게 쌓아 올려졌다. 딱새 어미 새가 나무박스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열심히 둥지 틀 준비를 하였다. 6개의 알을 낳은 어미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아주 부지런히 움직였다. 알을 품고 있을 때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지나다니는 우리를 경계했기에 수녀님들과 의논하여 딱새 가족에게 현관을 내주고, 우린 후문으로 다니기로 했다. 어미 새가 없는 틈엔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온 아기 새들을 축복하며 성장을 지켜보았다. 우리도 아기 새들의 성장을 돕고 축복하며 생명의 연대를 배웠다.

모이를 먹기 위해 입 벌린 노란색 주둥이는 여는 꽃과 같이 아름다웠다. 어미 새가 온 것을 어찌 알고 주는 먹이를 새끼들이 받아먹는 것마저 기특하고 놀라웠다. 분주히 먹이 찾는 어미 새의 노력과 수고는 사람들의 자식 키우는 엄마, 부모의 심정과 모습으로 연결하기 충분했다.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루카 11,13)라는 말씀이 그대로였다. 아기 새들의 안전한 성장을 향한 우리 마음과 축복도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더해져 새끼 새들을 함께 키우고 돌보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새들이 성장하고 돌보는 것이 세상 만물들의 도움과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의 성장도 세상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 안에 어느 누구도 제외되는 일 없이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삶과 기도는 세상 만물의 아름다운 질서를 향해 서로 연결되어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주어진 자신의 소명을 충실히 살아가는 너와 나, 우리이길 바라며 이 순간의 생명을 경축한다.

